돈암서원

[illegible]

무성서원

武城書院

병산서원

屛山書院

도동서원

[illegible]

도산서원

陶山書院

옥산서원

玉山書院

남계서원

[illegible]

소수서원

[illegible]

무성서원

[illegible]

[illegible]

병산서원

돈암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한국의 서원",

시간에 깃든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한국의 서원”, 시간에 깃든

문화유산은 유구한 역사와 세월에 대한 담보이기에, 문화유산을 마주하는 것은 그 사물에 담긴 시간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은 한국의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의 증거이자, 성리학 개념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인정받았습니다.

전시에서는 연속유산 '한국의 서원'을 우리 역사가 집결된 미학적 산물로서 바라보고 ‘시간이 깃든 서원’의 모습을 사진으로 들여다봄으로써 ‘서원이 깃든 우리의 역사 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unesco
World Heritage site

주최 : (재)세계유산 한국의서원통합관리센터

주관 : 아누다라

후원 : 문화재청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달성군 논산시 정읍시 장성군 영주시 안동시 경주시 함양군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16세기 중반~17세기 중반) 성리학 교육기관의 유형을 대표하는 9개 서원으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으로, 한국의 성리학과 연관된 문화적 전통에 대한 탁월한 증거입니다.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을 “한국의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의 증거이자, 성리학 개념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서원에는 바르게 다듬어진 지성과 성숙한 정신문화가 서려 있습니다. 선비들은 자연을 통해 사색하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둘러앉아 활발한 토론을 펼쳤으며, 책을 펴내고 문화예술을 꽃피웠습니다. 한국의 서원에는 소통, 화합, 나눔, 배려, 자연, 생명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역사, 교육, 제향, 의례, 건축, 기록, 경관, 인물 등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유산이 살아 있습니다.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은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하여 세계유산위원회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인정된 유산을 세계유산목록(World Heritage List)에 등재 시킨 유산을 말합니다. 이는 ‘한 국가에서만 보존되고 전승되는 유산이 아닌, 모든 국가와 국민이 공동으로 지키고 전승하여, 다음 세대와 함께 향유 해야 할 유산이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지닌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녀야 할 유산’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돈암서원

1634년, 충남 논산
예학 연구의 중심지

무성서원

1615년, 전북 정읍
교육에서 사회적 역할로

필암서원

1590년, 전남 장성
건축 배치의 변주

남계서원

1552년, 경남 함양
서원 배치의 기원

소수서원

1543년, 경북 영주
한국 최초의 서원

도산서원

1574년, 경북 안동
퇴계학파의 요람

병산서원

1613년, 경북 안동
자연과 서원의 앙상블

옥산서원

1572년, 경북 경주
서원 교육의 현장

도동서원

1605년, 대구 달성
건축 배치의 정형

소수서원

무릇 가르침은 어진 사람을 높이는 것에서 비롯된다. 사당을 세워 덕 높은 분을 받들고 서원을 지어 배움을 도탑게 해야 한다. 진실로 '교육'은 난리를 막고 굶주림을 구하는 것보다 급한 일이다.

- 신재 주세붕(1495-1554)

남계서원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뜻이지만, 뜻을 세웠다 해도 굳세게 세우지 않으면 물욕에 흔들려 빼앗기거나, 여러 사람의 입으로 말미암아 변동될 수 밖에 없다.

- 일두 정여창(1450-1504)

옥산서원

기강은 제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현명한 사람이 세워야 비로소 서며, 기강은 제 스스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도가 확립 되어야 비로소 시행된다.

- 회재 이언적(1491-1553)

도산서원

온 집이 고요하고 벽엔 책이 가득하다. 책상을 마주하고 잠자코 앉아 조심스럽게 마음을 가다듬어 책을 편다. 가끔 깨달음이 있기만 하면 기뻐서 밥 먹는 것도 잊었다.

- 퇴계 이황(1501~1570), '도산집영병기'

도동서원

남들이 혹 나를 비방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서로 남의 나쁜 점을 드러내어 말하지 말라. 이는 마치 피를 물고 남에게 뿜으려 하면 먼저 그 입을 더럽히는 것과 같은 것이니 마땅히 이를 경계하라

- 한훤당 김굉필(1454-1504)

필암서원

높고 낮음은 땅의 형세요
이르고 늦음은 하늘의 때랴
사람들 말이야 무슨 험 되랴
밝은 달은 본래 사심이 없도다.

- 하서 김인후(1510-1560)

병산서원

역염선사(力念善事) 힘을 다하여 선한 일만 생각하고,역행선사(力行善事) 힘을 다하여 선한 일만 행하여라.

- 류성룡(1542~1607)

무성서원

지혜로운 자는 가난해도 즐거워하고 어리석은 자는 부자라도 걱정한다.

- 고운 최치원(857-?)

돈암서원

땅이 온갖 것을 등에 지고, 바다가 모든 물을 받아들이듯 포용하라. 학문을 넓고 깊이 익혀서 예(禮)를 실천하라. 아침 햇살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품성을 길러라.

- 김장생(1548~1631)

소수서원

紹修書院

남계서원

瀞溪書院

옥산서원

玉山書院

도산서원

陶山書院

필암서원

筆巖書院

도동서원

道東書院

병산서원

屛山書院

무성서원

武城書院

돈암서원

遯巖書院